

IT 大家와 韓國의 宗家



조상치 IPAK/자문위원

2 003년 2월 22일 토요일 저녁 모 TV방송국에서 “韓國의 宗家”에 대하여 인상적인 Program을 방영하였다. 의성金씨를 비롯한 네 가문의 宗家를 소개하였는데 우연히도 필자가 “IT산악회” 모임을 따라 방문했던 곳들이었기에 더욱 흥미로웠다.

그토록 훌륭했던 조상들에 비해 현재의 후손들은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 그 많은 제사(보통 연간 20회 이상)와 후손들의 모임접대, 시설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종손이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50년 전까지만 해도 宗家の 위력과 재산은 모두가 부러워하였고, 특히 TV에서 소개한 宗家들은 여러 면에서 현재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현실성에 입각해서 풀어나가야 할 과도기의 고민거리라고 공감한다.

약력 : • 59~64 한국은행 • 77~96 한국외환은행 • 96~2000 에스에스통상 고문 • 현재 한국정보기술전문가협회 자문위원

그런데 소개된 宗家 중에서 유독 나의 흥미를 더욱 크게 한 宗家는 2002년도에 99세의 장수(?)를 누리시고 별세하신 분의 효자 장손을 비롯한 상주들과 가문의 소개로 너무나 감명 깊고, 보기 힘든 장면이었기에 소개한다.

2002년 10월 IT산악회 장거리 1박 2일 산행 Bus 속에서 산악회 원로 고문 한 분이 얼마 전 상가에 문상한 뒤 인사장을 받았는데 매우 인상적이니 한 번 씩 읽어보라고 회람했다. 필자 차례가 되어 읽어보니 두 장에 걸쳐 달필의 친필 붓글씨로 감사의 인사말과 더불어 “자식들이 불효하여 100세를 넘기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했다”는 후회와 사죄의 내용이 있었다. 그 당시에 도 매우 감동적이었고 보기 드물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TV에서는 동 宗家의 소개와 더불어 별세하신 어른의 장례식 모든 절차를 자세하게 안내하였다. 즉, 전통적인 유교관습대로 상주들은 굴건제복을 입고 문상을 받으며 엄숙하게 장례를 치루면서 문상객의 조위금을 사양하고 오히려 문상객 귀가길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와 담배 한 갑씩을 전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는 현재까지도 궤연을 차려놓고 매일 상식의식을 하고 초하루, 보름에는 모든 상주들이 다 모여 다시 굴건제복을 입고 슬퍼하면서 인사드리는 전통유교의식을 행하고 있다. 특히 필자의 눈에 크게 보인 것은 궤연말에 반짝반짝 빛나는 고인의 구두 한 켤레가 그 옛날의 짚신과 비교가 되었으며, 그 정성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우리나라 IT학계에 원조로서(우리협회 명예회원) 과학기술원 교수로 시작해 각 대학의 후학을 배양하시고, 그 뒤에는 우리나라 최대의 데이터통신 사장을 거쳐 직접 PC제조업에 진력하여 현재는 IT업계 최고의 성공을 한 모든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이시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장녀의 TV인터뷰에서 “아버지는 3世대를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이조시대의 유교사회, 농경·산업사회, 그리고 현재 IT산업사회를 이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모습이였다.

필자도 과거 대학원 시절 사제간의 인연을 맺어 기회 있을 때마다 인사장, 연하장 등을 보내주실 때 언제나 달필의 친필로 직접 써서 주시어 여러 가지로 감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공개된 TV Program의 장례의식을 보면서 “장례식으로부터(인사장 포함) 현재까지의 기록”을 잘 보관하여 앞으로 후세의 교양교육에 참고하였으면 한다. 누구도 믿기 어려운 IT 大家이면서 한국의 宗家 유교의식에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분의 모습이 길이 보전되기를 바란다.